

2026년 9월 4일

Hana FX Daily Letter

매파 색채 열린 연준 주요 인사들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연준 금리동결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와 수급 여건에 하락**
daily range 예상: 1,352~1,362원

■ 뉴욕 연은 총재에 이어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언급하며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확산되었음. 이로 인해 달러 약세와 위험 선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수급 측면에서도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어 환율 하락세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추가 하락을 시도하며 1,350원대 중 후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다만, 미국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반에 관망 심리가 짙어질 수 있는 만큼, 하락 속도는 다소 조절될 것으로 판단

- **전일 동향 : 3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7원 내린 1,357.5원 마감**
장 초반, 수출업체 매도물량과 중공업체 수주 소식에 1,350원대 중반까지 하락. 이어 저가 매수세에 1,360원대 초반으로 반등했으나 일본 당국의 실개입 경계감 속 엔화 대비 달러 약세 나타난 영향으로 1,359.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 이후 야간장에선 연준 이사의 도비시 발언 여파로 1,35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다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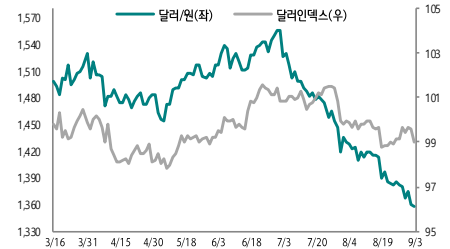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월러 연준 이사가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연준 동결 전망에 힘을 실는 메시지를 내놓자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짐
- (유로-달러) 최근 ECB 관계자들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은 반면, 연준 고위 당국자들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드러내면서 유로화는 강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일본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가 부각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도비시한 발언에 연준 긴축 우려도 완화되면서 엔화 강세 폭이 확대됨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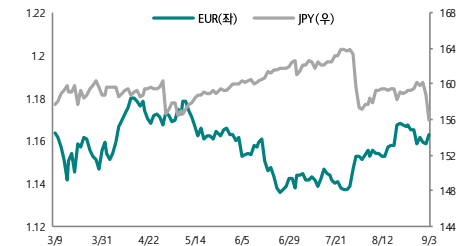
- 금일 저녁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 시장에서는 이번 비농업 고용자 수가 5.5만명 수준으로 반등하고, 실업률은 4.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최근 연준 통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엇갈린 신호들이 혼재하며 다소 복잡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 지난 7월 고용의 예상 밖 감소세와 미 물가지표 둔화로 연준 금리동결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으나, 이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메시지가 나오자 긴축 전망이 다시 강화되었음. 여기에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점 역시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음. 다만, 최근 뉴욕 연은 총재와 월러 연준 이사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언급하는 등 연준 내부의 완화적 목소리가 부각되었음. 따라서 8월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지 않는다면, 금리 동결과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당분간 팽팽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연준의 실제 행보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채 물가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임. 다만,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미국 CPI 및 PPI 등 주요 물가지표를 통해 둔화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도 혼재되어 있어 달러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59.0	1,363.8	1,355.3	1,356.1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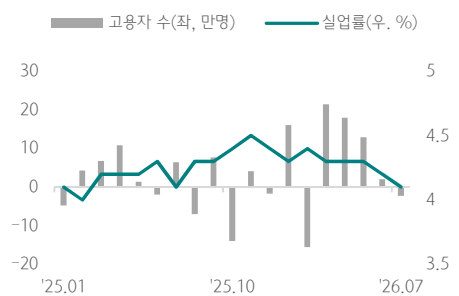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26	155.81	6.7175
전일대비	+0.0037	-2.90	+0.0002
재정환율	1,577.64	870.91	202.00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30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자수	55k	-23k
	미국 8월 실업률	4.1%	4.1%
	미국 8월 시간당 평균 임금	0.3%	0.1%

미 비농업 고용자 수 및 실업률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